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준비 본격화

전주대사습놀이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김승수 전주시장,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는 '제43회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와 제35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대회' 요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8~11일 국립무형유산원과 한옥마을 일원에서 펼쳐지는 '전국대회'의 경연참가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의 모집요강을 참고하여 오는 8월 11~23일 조직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또한 올해 전국대회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청중평가단 심사'는 판소리명창부 본선에 한하여 진행된다. 20세 이상의 판소리 분야 전공자 및 애호가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70명씩 총 140명을 오는 2~10일 사전 모집한다.

심사규정의 경우, 모든 경연 종목의 심사위원은 추천위원회와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한다. 먼저 추천위원회가 심사위원의 5배수 이상으로 심사위원 인력풀을 추천한다. 그 다음에는 선정위원회에서 3배수 이내로 압축한 후 공정한 추첨을 통해 각 종목별로 5명씩 심사위원을 최종 선정하며, 경연부문별 예선·본선 심사

▶ 대회는 월 8일부터 나흘간 무형유산원·한옥마을 일원서

처음 도입 '청중평가단 심사' 판소리명창부 본선에서 진행

모든 경연 종목 심사위원 추천·선정위 별도 구성 운영

'귀명창 눈명인' 이벤트 실시 '엄지 척!' 특별경연프로그램도

위원을 별도 구성한다.

조직위원회는 심사비리 대사의 오명을 벗기 위한 자구책 외에도 이번 대사습놀이 전주 시민들과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또, 열쑈!'를 주제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조직위는 대사습놀이에 대한 전주 시민



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귀명창 눈명인의 경연 참관' 이벤트를 실시한다. 전주 시민들의 적극적인 경연 참관을 유도하고자 종목별로 경연 참관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각각 '귀명창'과 '눈명인'으로 위촉하여 경연장별로 배치한다. 이들은 참관 후 전주대사습놀이 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들의 활동사항은

타입캡슐에 담겨 전주의 역사로 보관될 예정이다.

개막식 식전공연으로 마련되는 기념제(新年祭, 나라에서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던 제사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기시습제(祈私習祭)는 가족·커플·친구단위 등의 참가자가 국악(판소리, 민요, 춤, 연주, 농악, 시조)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퍼포먼스를 공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회의 성공을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아울러 '나도 소리꾼! 잼이꾼! 춤꾼!'이라는 부제로 열리는 '엄지 척!'은 국악분야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특별경연프로그램. 현장에서 즉석평가 '엄지 척!'이나 '아니냐'가 이뤄지는 이벤트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와 함께 '판소리 완창(홍보가, 수궁가, 춘향가)' 특별기획공연도 열린다. 9월 8일 개막일(금요일 오후 3시~6시) 이난초 명창의 홍보가를 시작으로 9일(토요일 저녁 7시~10시) 조봉달 명창의 수궁가, 9월 10일(일요일 7시~10시) 김수연 명창의 춘향가가 펼쳐진다. 특히 수궁가와 춘향가 완창 공연은 스승과 제자의 연창 형식을 취함으로써 전통 문화 계승의 의미를 더욱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해은 기자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풍경사진전' 무주양수발전소 홍보관서 전시

무주군의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으로 만나는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무주 풍경사진전'이 1일 무주양수발전소 홍보관에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9월 말까지 열리며 (주)한국수력원자력 무주양수발전소(소장 이명주)가 무주사진작가협회(회장 이운승)와 여름 휴가철과 반딧불이시즌을 맞아 무주의 아름다움을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풍경사진 전시회는 무주 덕유산국립공원을 비롯해 적상산, 무주호, 구한동 계곡 등 30여 점의 풍경 사진을 선보이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무주군 지역의 아름다움을 선보이게 된다.

풍경사진 전시회가 열리는 무주양수발전소 홍보관은 적상산 입구에 위치한 휴가철과 단풍철이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유명하다.

무주 양수발전소는 지난해 10여 억 원을 들여 홍보관 내부 리모델링했으며, 전력홍보 부스와 멀티비전, 동영상관 등이 설치돼 관광객들에게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다.

무주양수발전소 인근 적상산에는 수력발전소를 위한 전망대를 비롯해 천일·송대폭포, 장도·장군바위, 인련대 등의 자연명소와 적상산성, 안국사 등 유서 깊은 문화 유적이 자리 잡고 있어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이명주 양수발전소장은 "홍보관을 찾는 관광객에게 수력발전소의 역할과 친환경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 등을 홍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무주군의 관광 홍보를 위해 사진전 등 문화 행사에 참여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것"이라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산시, 하반기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공모

군산시가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2017년 하반기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을 공모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관내에 소재를 두고 1년 이상 활동한 문화예술 단체나 개인이며, 대상사업은 국악, 무용, 문인, 미술 등 총 12개 분야다.

하반기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의 신청자격은 관내에 소재를 두고 1년 이상 활동한 문화예술 단체나 개인으로 국악, 무용, 문인, 미술 등 총 12개 분야의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활동실적을 첨부해 군산시 문화예술과로 오는 10일까지 방문(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하여 직접 제출하면 된다.

김병곤 문화예술과장은 "지역문화 예술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및 지역예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이 품격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문화예술과 ☎ 454-328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근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이번주 개봉작의 주제는?

'복잡미묘한 감정에 중심에 선 여인들'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4층)은 열일곱 소녀에서 제택을 장악하는 매혹적인 여주인 '레이디 맥베스', 우연히 마주친 여자와 시형의 이야기 '여자들', 칸에서 파리로 이틀의 여정 '파리로 가는 길'을 3일 개봉·상영한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월드 시네마스케이프-스펙트럼 상영작 '레이디 맥베스'는 19세기 영국, 지주에게 팔려간 열일곱 소녀 캐서린의 진인한 운명을 그린 작품이다.

러시아의 대문호 니콜라이 레스코프의 '러시아의 맥베스 부인'을 스크린으로 옮겼다. 해당 소설은 그동안 영화, 오페라,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장르에 영감을 주었다.

윌리엄 울드리드 감독은 영화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배치하며 성, 계급, 인종을 아우르는 권력 문제를 담아낸다. 지난 7월 개봉예정작 관객 설문조사 반영작품으로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42회 서울독립영화제, 제31회 후쿠오

카시아영화제 특별 초청작으로 화제를 모은 영화 '여자들'은 주인공 시형이 우연히 여러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글을 써나가는 과정을 담은 영화다.

이상덕 감독의 데뷔작인 '여자들'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포함해 총 6개의 챕터로 구성된 독특한 형식의 작품으로, 감독은 한 달에 한 편씩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을 진행했다.

다양한 계절과 다른 장소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시형과 여자들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유발하고 있다.

영화 '파리로 가는 길'은 영화제작자인 남편 마이클을 따라 칸에 온 앤이 갑자기 남편의 동료 자크와 파리로 동행을 하게 되며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엘레노어 코플라 감독은 '대부'를 연출한 프랑스 포드 코플라의 부인이자, '매혹당한 사람들'로 칸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소피아 코플라 감독의 어머니로 자신의 실제 경험을 영화로 만들었다.

작품은 7시간 거리의 칸에서 파리까지의 여정을 이들에 걸쳐 마친 경험을 담

'레이디 맥베스', 지주에 팔려간 소녀의 운명 그려

'여자들', 주인공 시형과 여자들의 이야기 담아

'파리로 가는 길', 남편 따라온 주인공·남편의 동료와 파리로 동행하며 벌어지는 일 그려내

아낸다. 프로방스의 풍경과 음악 그리고 음식들로 채우며 관객들의 여행 욕구를 불러일킨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jiff.or.kr)를 참조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레이디 맥베스



여자들



파리로 가는 길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